
2016년 하반기 연구과제 및 연구모임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일시 : 2017년 3월 27일(월) 14:30~17:30

□장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연구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1. 개 요

□ 일 시 : 2017년 3월 27일(월) 14:30~17:30

□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목 적 :

- 2016년 하반기 연구지원사업(연구모임 및 연구과제) 성과 발표
- 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시민단체 연구수요 파악

□ 참석자 :

- 2016년 하반기 연구지원사업 추진 단체 및 개인
- 시민사회단체
- 충남연구원 : 강현수 원장, 권영현 연구실장,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 외

2.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30~14:35	행사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백운성 기조부장
14:35~14:40	인사 말씀	강현수 원장
14:40~16:00	【2016년 하반기 연구지원사업 성과 보고】 o 연구과제 - 천안시민들이 생각하는 천안의 유해시설과 관련 시설에 관한 연구 - 충남노인의 복지의식이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모시잎을 활용한 천연한방 발효 탈모방지 샴푸 제조방법 연구 - 적정기술을 통한 오리농업 활성화 연구 o 연구모임 - 청양로컬푸드 교육프로그램 연구모임 - 충남한우연구회-미래 축산의 희망, 함께 꾸는 꿈 - 부여군여성농민회 토종씨앗연구모임 - 공주시의회 시민모니터링 모델 개발 및 의정활동 개선방안 학습 연구	각 단체
16:00~16:10	휴식	
16:10~16:40	【간담회】 o 참석자 : - 유종준(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이평주(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조상연(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김지훈(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이상선(충남시민재단 이사장) o 주제 - 연구지원사업 성과 발표 총평 - 충남연&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연구과제 제안	백운성 기조부장
16:40~16:50	휴식	
16:50~17:00	【표창 수여】 - 연구과제 2팀(최우수 1팀, 우수 1팀) - 연구모임 2팀(최우수 1팀, 우수 1팀)	강현수 원장
17:00~17:30	2017년 연구과제 및 연구모임 지원사업 안내	백운성 기조부장
17:30	마무리 말씀	강현수 원장

【2016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지원사업 성과 보고서】

1. 천안시민들이 생각하는 천안의 유해시설과 관련 시설에 관한 연구

(조도영)

2. 충남노인의 복지의식이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탈빈곤 방안을 중심으로

(이상진)

3. 모시잎을 활용한 천연한방 발효 탈모방지 샴푸 제조방법 연구

(전평희)

4. 적정기술을 통한 오리농업 활성화 연구

(박용석)

천안 시민들이 생각하는 유해(물)시설 관련 인식 조사

2017. 3. 27.

연구자 조도영

CONTENTS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우수 사례
	종합 의견

□ 연구 배경

- 2016년 충남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으로 ‘미세먼지 공장’ 으로 전락 : 많은 연로 이주
- 학교 시설의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 : 사회적 문제로 다양한 언론 노출
-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부근 다목적구장과 태조산공원 족구장이 중금속 과다 검출 소식
- 유해물 또는 유해시설에 대한 관심 고조 : **정확한 인식이나 관련 정보 접근 기회 없음**



그림 1]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그림 2]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인지

□ 연구 배경

충남 학교주변 유해업소 1572곳 영업 '위험수위' [2015.07.29 /금강일보]

충남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1570여 곳에 달해 어린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해업소들의 영업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해시설 해제율은 56%에 이르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9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는 올해 상반기 현재 모두 157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564곳에 비해 8곳이 늘어난 것이다.

유해업소로는 유흥·단란주점이 4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가 405곳, 노래연습장이 355곳으로 뒤를 이었다. 당구장과 인터넷게임방, 만화가게 등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수백여 개가 문을 열고 있다.

- 유해약물 (담배와 술, 그리고 본드와 같은 한각물질 등)

- 유해시설 및 업소 술집이나 여러 성적인 행위를 유발하거나 하는 장소 유해행위 및 폭력 등이 해당됨.

천안 제5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반발

천안중학교에서 80미터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선정 [2012/09/14]

“누구를 위한 폐기물 매립장입니까?”, “성남에 폐기물 매립장 오면 아빠 엄마 전학시켜 주세요!”, “천안시장의 약속은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이 아닙니다.”, “천안5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결사반대” 이는 천안시 성남면과 수신면에 수 없이 걸려있는 현수막들의 문구다.동부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제5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금속 과다 검출된 천안 다목적구장 재시공 [2017.01.03.]

우레탄 바닥에서 허용 기준치의 45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충남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부근 다목적구장과 태조산공원 족구장이 철거 후 재시공된다.

3일 천안시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이 최근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내 실외 다목적구장 코트를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4천125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충남가축위생연구소, 'AI·구제역' 진단 시설관리 등 소출

[아시아경제 / 2016.12.07 10:47]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진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소 실험실에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10월 6일 충남가축위생연구소 본소(이하 연구소) 및 공주·아산·당진·부여·태안지소를 대상으로 2013년 9월 이후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적발된 사안에 따라 시정 1건과 주의 5건, 현지처분 3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 연구 목적

- 최근 유해물질과 유해시설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됨
- 천안시민의 건강한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지역 시민들이 생각하는 “유해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 : 향후 정책에 반영
- 2016년 11월 ~ 2017년 1월까지 “천안시 관점에서의 유해시설”에 관한 설문조사

◀ 용어 정의 ▶

- 유해물 : 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
- 유해시설 : 해로움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 유해물질 : 수질오염 방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유해물질
(예, 카드뮴, 시안, 유기 인화합물, 납, 6가 크롬화합물, 비소, 수은 등)



그림 3] 학교 유해업소 반대 시의 사례



그림 4] 유해물질 언론 보도 사례

▣ 연구 내용

- 표본추출 :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감안하여 층별 추출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주)직접면접조사 및 보)E-mail 조사 병행(충분한 설명 어려움)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표본	10세 이상 천안시 남녀		성별	남성	29
	110명			여성	81
조사기간	2016.11.05. ~ 2017.1.25		연령별	10대	46
설문방식	직접 조사	102		20대	8
	이메일 조사	8		30대	8
지역별	동남구	61		40대	34
	서북구	49		50대 이상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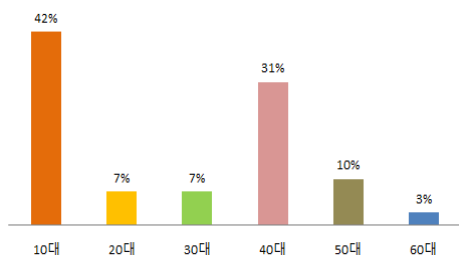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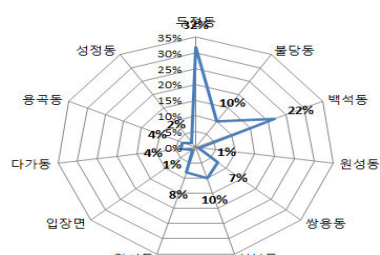


그림 6] 거주동별 분포 현황

▣ 연구 내용

▣ 연구 결과(일반적 인식)

질문 1] “유해물” 또는 “유해시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응답 결과 ‘화력발전소’, ‘유충업소’ 등을 포함하여 약 90여개 중복 응답에 대해 서술해 주었다.

특히 유해물과 유해시설 부분에서 그동안 다양한 언론에 거론된 다양한 분야가 명기되었는데, 원자력과 방사능, 핵폐기물 등에 대한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황사, 미세먼지, 공업단지 등에 대한 응답도 다수 있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는 모텔, 유충업소, 불량식품 등에 대한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질문 2] 천안시와 관련된 “유해물” 또는 “유해시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천안시 중심의 응답에서는 1번 질문의 많은 곳이 중복되었으나 지역 현안으로 보다 구체화된 사례로서 삼성반도체 공장, 성거 쓰레기 소각장, 장례식장과 함께 많은 응답자가 천안의 경우 유충가, 모텔과 함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복수의 응답이 많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천안지역 폐기물매립장 반대 사례

학교명	준공일	최근안전 검사일	검사 기관명	현 상태			소요 일 관리		연초 잔디 세척		
				청 거	교 재	준 거	유	무	SR	EP DM	SE DS
삼운초	2010-12-19	2010-12-24	환경자원분석센터		○	○					○
성거초	2009-12-31	2012-03-2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성환초	2009-05-15	2009-04-28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구성초	2007-10-29	2007-10-30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마라초	2007-07-05	2007-10-22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서여중	2011-03-31	2011-03-1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천안초	2010-06-11	2010-06-23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			○		
신부초	2007-04-13	2007-07-18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용곡초	2008-12-23	2008-12-22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월포초	2009-11-03	2013-05-10	FTI시험연구원		○	○				○	
일봉초	2007-06-28	2007-07-10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천안초	2011-07-29	2011-06-2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제일고	2012-07-04				○	○				○	
북일고	2010-02-04				○	○				○	

표 1] 천안지역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 조사

▣ 연구 결과(세부 인식)

질문 1] ‘유해물’이라고 하면 제일먼저 생각나는 것은?

유해물 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환경오염 배출 업소 3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대단위 공업단지 22%**, **불법 광고물 19%**, **황사 등 미세먼지 17%**, **불법 먹거리 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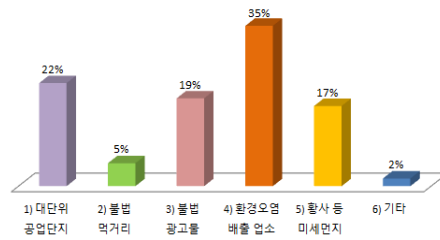


그림 8] 유해물 하면 생각 나는 것

질문 2] 충남 천안시의 유해시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천안시 유해시설 분포에 대한 인식

천안시에 분포하는 유해시설의 정도를 물어본 질문으로 **보통이 41%**, **낮다 36%**, **매우낮다 13%**, **높다 9%** 순으로 나타남.

이는 천안의 경우 유해시설이 다수 있는 공업 도시라는 이미지와 일부 상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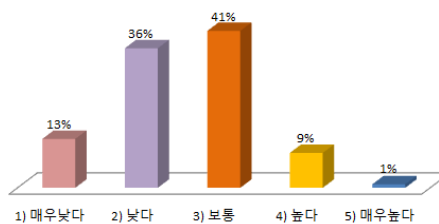


그림 9] 천안시 유해시설 분포에 대한 인식 정도

▣ 연구 결과(세부 인식)

b) 천안시 유해시설 관리의 적절성

천안시의 유해시설 관리의 적절성 질문으로 **보통 45%**, **낮다 42%**, **매우낮다 10%**, **높다 3%**의 응답으로 나타남.

이는 유해시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인식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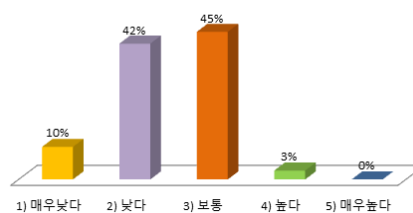


그림 10] 천안시 유해시설 관리의 적절성

c) 천안시의 정확한 유해시설 기준에 대한 홍보

천안시가 유해시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 결과 **낮다 46%**, **보통 30%**, **매우낮다 23%** 순으로 나타남.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해시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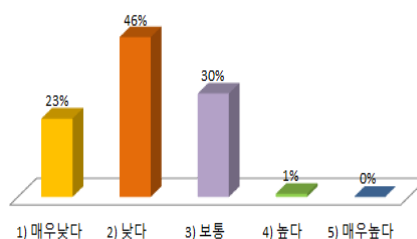


그림 11] 천안시의 유해시설 기준 등에 대한 홍보 정도

▣ 연구 결과(세부 인식)

질문 3] 천안시 유해시설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1) 천안은 타지역(아산·평택 등)과 비교 시 현재 유해시설 분포 정도는 어떻습니까?

천안시가 인근 도시에 비교하여 현재 유해시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9점 척도 중 5점 40%, 6점 19%, 4점 15%, 7점과 4점이 15% 순으로 응답함.

이는 설문에서 아산과 평택의 사례를 들었는데 2 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유해시설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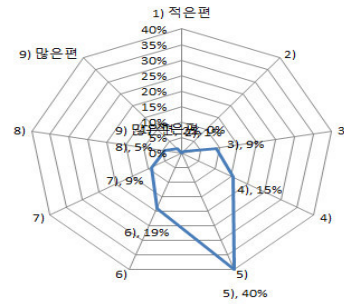


그림 12] 천안시의 경우 타지역과 비교시 유해시설 분포 정도

2) 천안은 타지역과 비교 시 향후 10년 후 유해시설 전망은 어떻습니까?

향후 10년 후 천안시가 타지역과 비교시 유해시설 전망 부분을 9점 척도로 물어 본 결과 응답이 5점 27%, 7점 25%, 6점 23%, 8점 10%, 4점 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유해시설이 타지역에 비하여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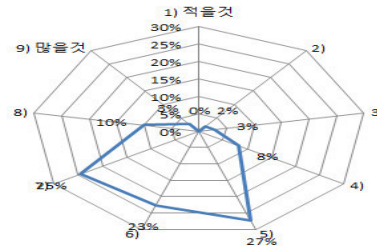


그림 13] 천안시의 향후 10년 후 유해시설 전망

▣ 연구 결과(세부 인식)

질문 4] 천안 발전과 관련하여 유해시설 유치 및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a) 천안 발전을 위해 일부 유치 가능(대단위 산업단지 등)

천안 발전을 위해 대단위 산업단지 유치 등에 대해 물어 본 결과 응답이 보통 53%, 높다 26%, 낮다 16% 순으로 나타남.

이는 향후 천안 발전을 위해 대단위 산업단지 등의 일부 유치 등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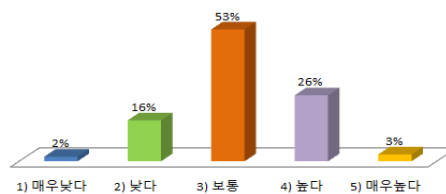


그림 14] 천안 발전을 위해 대단위 산업단지 등 유치 가능

b) 천안 도시 확대와 함께 일정 부분 필요한 시설(음식물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천안시 도시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음식물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의 시설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이 보통 51%, 높다 33%, 낮다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확대에 필요한 일부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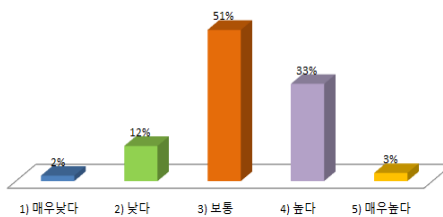


그림 15] 천안 도시 확대와 함께 유해시설 필요성 정도

▣ 연구 결과(세부 인식)

c) 천안의 일부 지역에 관련 시설 유치 운영(폐기물 소각장, 장례문화원 등)

천안시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폐기물 소각장, 장례문화원 등의 유치와 관련해서 응답이 보통 47%, 높다 29%, 낮다 18% 순으로 나타남.
이는 관련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일부 유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 조사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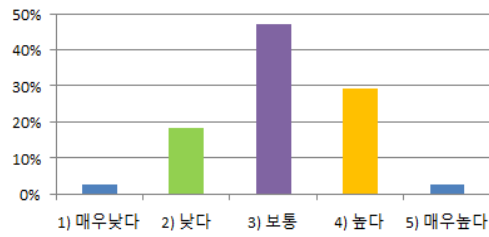


그림 16] 천안시 필요 유해시설 유치 운영에 대한 인식

질문 5] 학교와 관련한 '유해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학교와 관련한 유해물에 대하여 6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응답이 불량 먹거리 33%, 유해지정 시설 27%, 우레탄 트랙 등 시설 24%, 불법 광고물 8%, 소음 발생 시설물 7% 순으로 나타남.
여러 학교주변 유해물 중 인식의 정도 차이를 알 수 있는 항목으로 불량 먹거리에 대한 문제와 학교 안의 유해시설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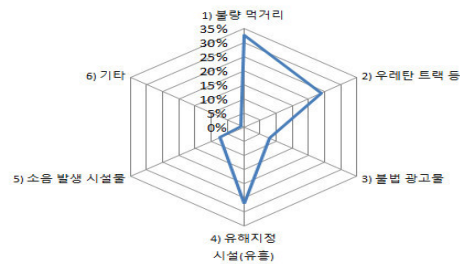


그림 17] 학교와 관련한 유해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 연구 결과(세부 인식)

질문 6] 최근 충남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관련 인식조사입니다.

a)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심각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충남 화력발전소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자 중 높다 47%, 보통 30%, 매우높다 11%, 낮다 10% 순으로 나타남.
이는 언론 등의 홍보로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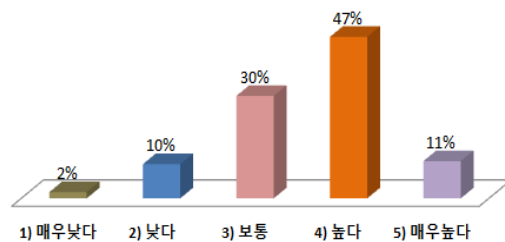


그림 18]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인식

b) 미세먼지가 천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미세먼지가 천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자 중 높다 46%, 보통 34%, 매우높다 15%, 낮다 5% 순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의 미세먼지가 천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 조사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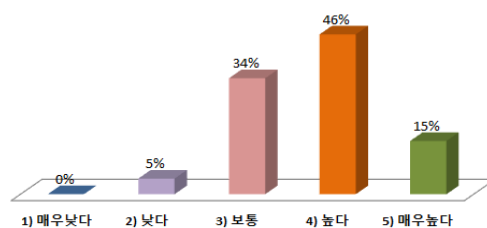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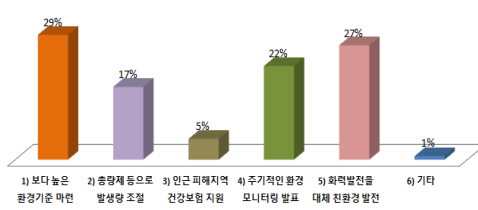


그림 19] 미세먼지가 천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인식

▣ 연구 결과(세부 인식)

질문 7]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법 중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경우 **보다 높은 환경기준 마련 29%,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친환경 발전 개발 27%,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 발표 22%, 총량제 등으로 발생량 조절 17%, 인근 피해지역 건강보험 지원 5% 순으로** 나타남.



그림]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선호도

※ 국가, 충남도 환경기준 비교
-2017년 1월 1일부터 -
[전국 최고 수준 대기환경 기준 시행]

항 목	국 가		우리도(충남) 대기환경기준
	연평균	국 가 대기환경기준	
아황산가스(SO2) [ppm]	연평균	0.02	0.010
	24시간 평균	0.05	0.03
	1시간 평균	0.15	0.10
일산화탄소(CO) [ppm]	연평균	9	5
	24시간 평균	25	10
	1시간 평균	0.03	0.02
이산화질소(NO2) [ppm]	8시간 평균	0.06	0.04
	1시간 평균	0.10	0.08
미세먼지(PM10) [㎍/㎥]	연평균	50	40
	24시간 평균	100	80
미세먼지(PM2.5) [㎍/㎥]	연평균	25	20
	24시간 평균	50	40
오존(O3) [ppm]	8시간 평균	0.06	0.06
	1시간 평균	0.1	0.1
납(Pb) [㎍/㎥]	연평균	0.5	0.3
벤젠 [㎍/㎥]	연평균	5	3

▣ 우수 사례

▷ 충청남도 사례 : 지자체 차원 선도적 정책 추진

충청남도는 “이번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도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을 급년 상반가지 제정하여 실질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충남의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도 사례 : 정보 공유 사례

주택분양 광고에 혐오시설 표시 의무화

경기, 새달부터 조례 시행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지

[출처: 서울신문/2012-08-14 12면]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에 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 시행자는 단지 주변 혐오시설 등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경기도는 500가구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철도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 등을 분양 광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주택 청약 예정자가 단지 주변의 현황을 꼼꼼히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때 공고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공고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차로 이상 도로와 철도, 공원, 학교,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35개다.

▷ 경상남도 사례 : 대국민 교육 연계 추진

경남, 20개교 지정 교육 [부산일보 : 2016-10-13 (14면)]

미세먼지 선도학교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운영된다.

경남도 교육청은 ‘경남형 미세먼지 대책과 교육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해 지역 내 20개 학교(초등학교 17곳, 중학교 3곳)를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선도학교는 화력발전소, 고속도로, 대형 공단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정한다. 20곳을 시범학교로 지정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시범학교를 포함해 50개교를 미세먼지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 충청남도 사례 : 눈높이의 새로운 제도 운영 사례

충남도, 광역 최초 ‘유해동물 포획 포상금제’ 운영[천안 저널 / 2013-12-24]

내년부터 고라니·청설모 등 포획시 포상금 지급

충남도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는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도는 그동안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전기 목책기·철선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수렵장의 한시적 운영 등으로는 유해 야생동물 퇴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포획이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종합 의견

- 본 설문은 경우 그 표본이 작아 천안 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대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설문자가 관련 취지 설명과 설문의 의도를 설명하고 응답을 받은 부분에서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전체 시민들에 대한 평균 의견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유해물, 유해시설에 대하여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충남의 미세먼지 문제는 천안시의 문제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나타남.
- 반면 천안시의 향후 도시 확대를 위해 대단위 산업단지 유치와 도시가 팽창하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남. 따라서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이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천안시 및 충청남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물 및 유해시설에 대해서도 우수 사례의 경우 적절한 홍보 방법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와 소통이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충남 노인의 복지인식이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산석림사회복지관 이상진

서론

충남인구의 고령화 및 빈곤화 심각

- 전국 5위의 고령화
- 수급자 중 노인비율이 32.5%로 전국수준 30.6%에 비해 높음

누적된 불평등

- 전생애적 맥락 이해 필요
- 상대적 소득지위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갈등 초래

-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갈등 증가
- 사회갈등지수 10%향상시키면 1인당 GDP 1.75~2.41% 증가



연구목적

한국복지패널 2007년도 2차년도 자료와 2013년도 8차년도 자료를 결합하여, 충남노인의 빈곤지위이동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 만족도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탈빈곤 방안을 제시하고자함

첫째

충남 빈곤노인의 빈곤지위이동(빈곤탈출집단 대 빈곤지속집단)의 변화를 파악

둘째,

충남 빈곤노인의 빈곤지위이동 결정요인을 파악

연구방법

분석자료

-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가구용 조사 중 가구 및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응답한 충남거주 65세 이상의 노인
- 한국복지패널 조사 중 2007년 2차년도 자료와 2013년 8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2차년도와 8차년도 동일응답자 중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충남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137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연구로서, 소득계층별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각 3,500가구씩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7,000가구를 선정하여 매년 조사

측정도구

- **빈곤**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빈곤지위이동**

2007년 2차년도 자료에서 빈곤집단이 2013년 8차년도에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 중 어디로 이동하였는지를 조사

->빈곤지속집단 : 2차년도와 8차년도에 모두 빈곤집단인 경우

빈곤탈출집단 : 2차년도에 빈곤집단이 8차년도에 비빈곤집단인 경우

-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복지서비스이용경험 :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 물품지원 등 21개 문항

->이용만족도 : 각 이용서비스에 대한 5점리커트형의 만족도

분석

- SPSS 21.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함

연구결과



충남노인의 빈곤지위이동

		빈도(명)	백분율(%)
빈곤지위 (n=327)	빈곤노인	189	57.8
	비빈곤노인	138	42.2
빈곤지위이동 (n=137)	빈곤탈출노인	23	16.8
	빈곤유지노인	114	83.2

충남빈곤노인의 특성:비빈곤노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빈곤탈출집단 n(%)	빈곤유지집단 n(%)
성별	남	7(30.4)	36(31.6)
	여	16(69.6)	78(68.4)
연령	65-69	8(34.8)	39(34.2)
	70-79	11(42.2)	63(55.3)
	80세이상	4(7.4)	12(10.5)
교육수준	무학	7(30.4)	48(42.1)
	기타	16(69.6)	66(57.9)
혼인상태	배우자있음	15(65.2)	70(61.4)
	배우자없음	8(34.8)	44(38.6)
경제활동상태	무직	9(39.1)	67(58.8)
	경제활동함	14(60.9)	47(41.2)
경제활동 가족수	없음	7(30.4)	32(28.1)
	1명	13(56.5)	57(50.0)
	2명이상	3(13.0)	25(21.9)

9

충남빈곤노인의 특성:비빈곤노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빈곤탈출집단 n(%)	빈곤유지집단 n(%)
자택여부	자가	19(82.6)	80(70.2)
	기타	4(17.4)	34(29.8)
가계총소득	999만원이하	6(26.0)	29(25.4)
	1,000만원~1,999만원	7(30.4)	50(43.9)
	2,000만원이상	10(43.5)	35(30.7)
	없음	4(17.4)	25(21.9)
금융자산총액	1만원~499만원	13(56.5)	57(50.0)
	500만원이상	6(26.1)	32(28.1)
	없음	10(43.5)	77(67.5)
부채총액	999만원이하	9(39.1)	17(14.9)
	1,000만원이상	4(17.4)	20(17.5)

10

빈곤탈출집단과 빈곤지속집단의 복지의식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t값
복지서비스이용	빈곤탈출집단	.63(1.52)	-3.45**
	빈곤지속집단	2.13(2.97)	
복지서비스만족도	빈곤탈출집단	3.53(.51)	-.790
	빈곤지속집단	3.93(1.09)	

충남노인의 빈곤지위이동결정변인

		1=빈곤탈출집단, 0=빈곤지속집단			
		B	S.E	Wald	Exp(B)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a	-.525	.641	.672	.592
	연령	.028	.022	1.565	1.028
	교육수준 ^a	-.598	.634	.887	.550
	혼인상태 ^a	-.200	.728	.076	.819
경제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a	1.553	.729	4.545*	4.727
	경제활동가족수	-1.151	.562	4.188*	.316
	주택여부 ^a	.785	.797	.969	2.191
	가계총소득	.000	.000	.073	1.000
	금융자산총액	.000	.000	.848	1.000
	부채총액	.000	.000	.356	1.000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감	복지서비스 이용	-.649	.379	2.931*	.523
	복지서비스 만족도	-.836	.430	3.777*	.433
chi-square		85.453***			
Nagelkerke R2		.639			
분류의 정확도		84.0%			

*p<.01, *p<.05, ***p<.001 ^a더미코딩: 성별(남=1), 교육수준(무학=1), 혼인상태(유배우자=1), 주택여부(자가=1), 경제활동상태(경제활동중=1)

논의 및 결론

- 충남 빈곤노인의 빈곤지위이동에 경제적 특성 변인 중 경제활동상태와 경제활동가족수가 유의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는 빈곤지위이동에 정적인 영향을, 경제활동가족수는 빈곤지위이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

- 경제활동상태는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는 빈곤지위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활동가족수의 부적인 영향은 소비지출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수는 있지만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일자리와 넉넉하지 않은 경제수입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소비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빈곤지위의 변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

- 정부의 빈곤노인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의 사업의 구조를 보면, 경제적 자립이 아닌 활동지원정도의 부수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빈곤지위이동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빈곤에 영향을 주는 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생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13

논의 및 결론

-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많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빈곤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낙오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비행 등에 관여

- 복지서비스는 이러한 빈곤지위에 있는 대상자에게 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의존하게 하여 근로의욕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빈곤지위에 있는 노인의 빈곤지위변화를 유도하려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해 경제활동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14

논의 및 결론

- 2007년 2차년도에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의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가족수,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만족도 등은 2013년도 충남 노인의 빈곤지위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서 빈곤지위이동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의 경제활동 상태임
-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공적부조나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소득지원 및 경제활동기회 부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보편적인 소득보장정책들의 수준을 현실화 시키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개인적인 특성이나 환경적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2016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지원사업 성과 보고서

연구 과제명	모시잎을 활용한 천연 한방 추출 탈모방지 샴푸 제조 방법 연구			
연구 기간	2016년 9월 19일 ~ 2017년 2월 28일			
연구참여자	책임 연구원 전 평 희 / 선임 연구원 윤 세 범			
연구책임자 (책임)	이름	전 평 희	핸드폰	
	소속 (직업)		e-Mail	



연구과제명

모시잎을 활용한 천연한방 추출 탈모방지 샴푸 제조방법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탈모인구는 1,000만명 정도로 탈모로 인한 비용지출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접근이 필요.

2) 연구목적

탈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은 천연한방샴푸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탈모와 탈모의 문제 및 계면활성제로 인한 환경오염감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



3) 연구 방법

현재, 국내에서 탈모 방지 및 발모효과가 검증된 어성초, 자소엽, 녹차 추출액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한련초, 당귀, 감초, 뽕잎, 다시마, 창포, 박하, 로즈마리와 같은 탈모 및 발모와 검은 머리에 효과가 좋은 한방재료를 추출한 후 샴푸페이스트와 결합하여 약초를 이용한 한방 추출샴푸를 제조

샴푸 페이스트는 코코넛 오일을 주원료로 하고 피마자유, 동백유, 엑스트라 올리브 버진 오일 등 천연오일을 사용하고 천연 옥수수 점중제 및 실크 아미노산, 판테놀, 천연 허브 에센스 오일 등을 첨가하여 천연제품만 사용하는 귀한 샴푸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조성

아울러, 서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모시잎 추출액을 이용하여 모시의 특성을 살린 천연 한방 모시샴푸를 제조하여, 서천이 모시의 본고장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



2. 연구 내용

- 1) 현재까지 진행해온 결과물을 기반으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모시잎과 모시잎 분말을 이용한 샴푸의 연구 및 조사
- 2) 모시잎은 칼슘 (우유의 50배),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A/B/C 등을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식품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건강한 생장품(살아있는 화장품) 으로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연구토대 마련
- 3)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제품 연구에 필요한 산도 측정 및 점도 측정을 하였으며 향후 추가제품 개발과정에도 협조를 받기로 함



3. 연구 결과

모시추출액을 이용한 탈모 방지 및 발모촉진 기능성 샴푸의 제조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11월 11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하는 “서천군 농산물축제”에 출품하여 서천군민 및 서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소개 판매를 실시하여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2016년 12월에는 서천군 귀농인 500여명이 참가하는 “서천군 귀농인 한마당”에 출품하여 판매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음.

아울러, 이렇게 귀농인이 6차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귀농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충남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귀농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예비 귀농인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어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기대됨.



3-1. 완료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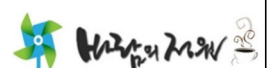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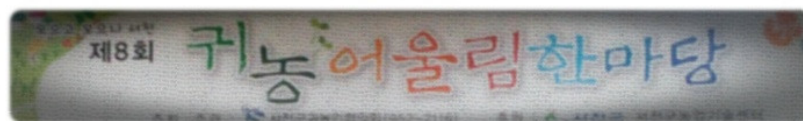
[한산모시 약초추출 속성샴푸 / 한산모시 홍삼 & 약초 추출 발모액]



3-2. 2016년 11월 11일 " 서천군 농상품축제 " 출품



3-3. 2016년 12월 09일 " 서천군 귀농인 한마당 " 출품



3-4. 서천군 지역신문 관련 기사 게재

뉴스서천

모시활용 천연발효 샴푸 제조방법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지원사업 선정

2018년 09월 28일 (수) 17:31:55

허정균 기자 hujg@newscc.co.kr



▲ 전정희씨가 개발한 한방발효 발모샴푸

는 천연 한방재료만 가지고 만든 화장품"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제품으로 출시된 "한방발효 발모샴푸"는 여성초, 녹차, 자소엽, 한련초, 박하, 창포 등 20가지 한방재료를 6개월 이상 발효시킨 발효액 100%를 이용할 뿐 아니라, 일체의 화학 계면활성제나 방부제 및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되며, 몇 가지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탈모방지에 탁월할 뿐 아니라 발모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모시를 활용한 이러한 생활용품들이 개발됨으로써 모시의 메카로서의 서천이 기대되고 있다.



3-5. 약초추출 모시 숙성 샴푸 리플렛



여성초를 비롯한 천연 한방재료
(녹차, 한련초, 자소엽, 박하, 창포 외)
6개월 이상 발효
천연오일로 만든 샴푸 페이스트 3개월 이상 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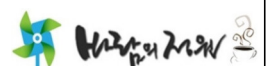
천연 계면 활성제	100%
천연 한방 발효액	100%
천연 식물성 오일	100%
합성 계면 활성제	0%
자연 유래 계면활성제	0%
방부제	0%
정제수	0%

탈모 방지 샴푸 &
발모 헤어 미스트를
4개월간 함께 사용한
임상 실험 결과



본 제품은 일반 샴푸보다 거품이 덜하며
처음 사용 시 모발이 뽀뽀한 현상 있지만
1주일 이상 사용 시 개선됩니다

부드러운 머리결 / 좋은 향기 보다는 건강을 생각한 귀한 샴푸입니다



4. 향후 과제 - 모시산업의 다양화

충남 서천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지만 서천의 특산물인 모시를 활용한 제품으로 향후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 샴푸 생산 및 건강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
향후 모시잎을 활용한 기능성 샴푸의 제조를 뛰어넘어 모시 잎 추출액을 활용한 여성 청결제 및 바디크렌저 , 치약 등의 천연 생활 용품의 연구 및 제품화에 주력

감 사 합 니 다



적정기술을 통한 오리농법 활성화 연구

연구 기간	2016년 9월 19일 ~ 2017년 2월 28일
연구참여자	박용석, 주하늬(농부), 최용운(적정기술)

적정기술을 통한 오리농법 활성화 연구

연구배경

- 2008년 국내 조류독감 쇠퇴함
-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철새는 죄가 없다〉
- 우렁이농법 - 제초, 외래종, 월동 피해
오리농법 - 제초, 병충해, 순환농업에 적합한 농법
- 2016년 2,046,000㎡ 318,000㎡ 3,200여 마리 15%

연구목적

- 오리농법을 개선 : 오리농법 활성화
- 적정기술 접목 : 비용절감, 자동화
- 수익창출 : 오리 비육과 가공사업의 가능성 모색
- 친환경 농업 확대
- 관광자원화

연구 방법

- 적정기술 적용을 위한 시제품 제작
- 오리의 비육과 가공사업을 위한 농가 설문 및 업체 방문
- 지속적인 오리농법 활용을 위한 개선점과 가능성을 모색

연구 내용

- 1) 오리집 제작
- 2) 오리사육 자동화 1 (자동문 개폐장치, 알람)
- 3) 오리사육 자동화 2 (자동 급수장치)
- 4) 오리사육 자동화 3 (자동 사료투입장치)
- 5) 태양광 전기목책기 활용가능성 연구
- 6) 오리농법 후 오리비육과 가공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

1) 오리집 제작



연구 결과

2) 오리사육 자동화 1 (자동문 개폐장치, 알람)



연구 결과

3) 오리사육 자동화 2 (자동 급수장치)



연구 결과

4) 오리사육 자동화 3 (자동 사료투입장치)



연구 결과

5) 태양광 전기목책기 활용가능성 연구

자재 판매 단가표						
시설명: 전기 축적식 목책기 이 름: 홍성균 문답리 (010 3101 3756) 주소지: 홍성군 공동면 문답리 215 작성일: 2017년 3월 19 일 사업장: 320 M (외지용 4단 시설)			등록 번호 135-08-52154			
구분	종 명	규 격	세트 단가	수량	금 액(W)	개별 판매 단
기본 시설	본체 7001(일반형)	전기식	200,000	0	0	
		전기식	300,000	0	0	
	본체 8005(고급형)	태양식(12V-14A)	400,000	1	400,000	
	검자봉	Φ12-50cm	3,000	3	9,000	
	검자선	KSC-4SQ	8,000	1	8,000	
	본체 거치대	50-1.5m	8,000	1	8,000	
추가 시설	지주대 FRP	Φ25-1.5m	3,500	80	280,000	
	지주대 CAP	Φ25-10mm	300	80	24,000	
	스트링 액자	스텐 Φ25-40mm	400	240	96,000	
	플라스틱 액자	(외곽이프/나무용)	500	0	0	
		Φ25mm 전용	500	0	0	
	폴리 와이어	Φ3.5-500m	80,000	2	160,000	
	주의 표지판	200*150mm	1,500	15	22,500	
	출입문 핸들	GATE HANDLE	5,000	3	15,000	
	고압 접사기	LAMP작-7단	30,000	1	30,000	
인 건 비			400,000	1	400,000	
합 계 금 액		개별 현금 구매 단가			1,452,500	
*** 일반 소비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시에는 정부 권역단가 적용 함 ***						
최 중 금 액						
결제 계좌: 기업은행 113-016727-01-011 예금주: 이행수						
특기 사항 *당사의 제품은 감전사고 위험이 없으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I)에 가입되어 안전 합니다. *당사는 전기 유틸리티 특허 등록 및 벤처/이노비즈 인증기업으로 수익계약이 가능한 업체이며 국제전기안전인증(UL, CSA)을 취득하여 수출하는 국내 최대, 최고의 전기유틸리티 전문기업입니다						

A Sam Total Engineering

연구 결과

6) 오리농법 후 오리비육과 가공사업 타당성 조사

항목		단가	업체	비고
새끼 오리 구입		2,000원/마리당	영우농산	청둥오리기준 흰오리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품귀로 구입불가
사료비		4,000원/마리당		마리당 총 사료비 (최대치)
오리 도축		1,000원/마리당	(주) 신성	도축을 위한 최소 마릿수는 다시 협의기로 함
오리 가공비	백숙	500원/마리당	덕담골 영농조합 외 인증업체	최소 마릿수 없음
	훈제	2500원 +700원(빼제거) /kg당		기본 300마리 이상
	떡갈비	3,500원/kg당		기본 200마리 이상
운반비		50만원/1500마리		오리 마릿수가 적을 경우 마리당 단가가 상승

향후 과제

- 독립형 컨트롤러 제작 (태양광)
- 작동장치의 표준화
- 오리망 설치작업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오리비육과 가공사업의 구체화
- 지속적인 실험

적정기술을 통한 오리농법 활성화 연구



적정기술을 통한 오리농법 활성화 연구

감사합니다.

【2016년 충남연구원 연구모임 지원사업 성과 보고서】

1. 청양로컬푸드 교육프로그램 연구모임-농민 스스로 교사가 되는 로컬푸드 표준교안 연구

(박영숙)

2. 충남한우연구회-미래 축산의 희망, 함께 꾸는 꿈

(이돈영)

3. 부여군여성농민회 토종씨앗연구모임

(서집미, 김지숙)

4. 공주시의회 시민모니터링 모델 개발 및 의정활동 개선방안 학습 연구

(서봉균)

농민 스스로 교사가 되는 로컬푸드 교안연구

청양 로컬푸드 교육프로그램 연구모임

목차

- 활동의 필요성과 목적
- 활동경과
- 성과와 과제

활동의 필요성

-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5년 , 90여명의 소농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창립하여 꾸러미, 농민장터, 이동형차량 장터 등 로컬푸드 직거래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레스토랑을 운영할 계획임.

청양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과 레스토랑 (2017. 4. 13. 개장 예정)



- 그동안 수차례의 직거래장터,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농민들이 자가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조차도 소비자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하지 못하고 교류와 체험행사도 점심식사제공 수준에 머물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레스토랑 등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시켜 지역 소농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가치를 소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

- 크고 작은 교류, 체험행사 등에 경비와 교통, 시간의 문제로 외부전문강사를 섭외하기도 어려운 지역상황에서 농민이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표준교안을 만들어 농민과 소비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음.

- 본 연구모임은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를 위한 농민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교육 등 활동을 해 오면서 농민 주도의 소비자 교육과 이를 위한 표준교안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음.

- 농민 스스로 교사가 되어 소비자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표준교안을 생산함.

표준교안에 바탕한 시연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민교사들과 소통하여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고자 함.

활동경과

- 강사초청 특강 (4회)
- 일본어 참고도서 일부 번역
- 워크샵 (2회)

강사초청 특강(1)

- 강사 : 김연순
- 주제 : 팀빌딩, 참여식교수법
- 일시 및 장소 : 2016. 9. 21. (칠갑산 산꽃마을 회의실)
- 목적 : 로컬푸드 해설을 위한 참여식 교수법의 활용
- 주요 내용 : 자기소개방법론, 의사소통기법, 토론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



강사초청 특강(2)

- 강사 : 이경란
- 주제 : 로컬푸드 감성을 키우는 환경교육 사례연구
- 일시 및 장소 : 2016. 9. 29. (칠갑산 산꽃마을 회의실)
- 목적 : 로컬푸드와 환경교육을 위한 교구활용
- 주요 내용 : 땅이 살아야 농사가 산다, 양천구 환경교육 사례, 로컬푸드 안내자의 역할



강사초청 특강(3)

- 강사 : 박숙희
 - 주제 :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16. 10. 6. (칠갑산 산꽃마을 회의실)
- 목적 : 식생활교육에 대한 기본방향과 경험 공유
- 주요내용 : 바른 식생활 문화와 로컬푸드, 식생활문화와 구성요소, 음식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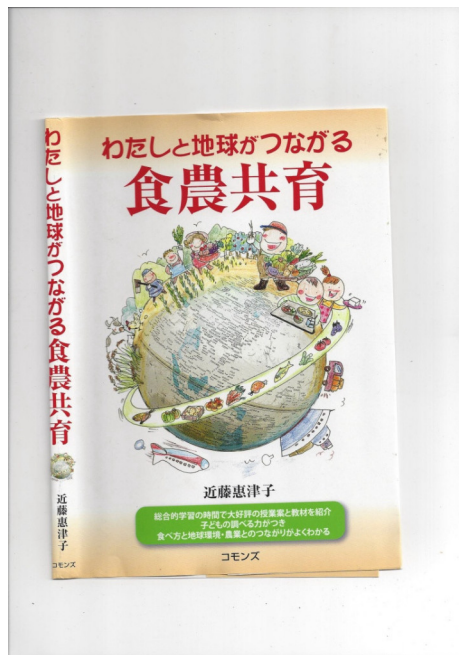


강사초청 특강(4)

- 강사 :안인숙
- 주제 : 로컬푸드와 푸드마일리지
- 일시 및 장소 : 2016. 10. 13. (청양로컬푸드 회의실)
- 목적 : 로컬푸드와 푸드마일리지 개념과 활용
- 주요 내용
우리의 먹거리는 어디에서 누가 생산하는가?
푸드마일리지의 개념과 활용



참고도서 일부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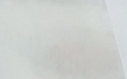


번역내용(일부)

- 2.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들의 먹을거리
- 푸드마일리지와 지산지소
- ◆ 처음에는 친근한 질문부터
-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뮤니티스쿨, 마을디자인 하치오지 팀입니다. 저희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세상일에 늘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으며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학습 방식으로 활동하는 그룹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먹을거리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우리 수업은 이런 인사말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같이 배우고 생각해 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통합 학습을 시작한 이래 게스트 선생님들의 수업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 이외의 어른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익숙한 듯합니다. 떠돌고 까부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 어린이들보다 훨씬 긴장하고 있는 스태프(메인 강사, 서브, 어시스턴트)의 자기소개, 수업 진행방법 설명, 워크시트 배포와 설명, 좌석번호 확인을 마치고 우선 간단하고 친근한 질문을 합니다. 가벼운 워밍업인 셈입니다.
- 오늘 아침밥 먹고 온 사람?
- 아이들 대부분이 손을 듭니다.

워크숍



 콩나물국 182g CO _{2e}	 콩나물국 182g CO _{2e}	 콩나물국 182g CO _{2e}	 콩나물국 182g CO _{2e}	 콩나물국 182g CO _{2e}	
 쇠고기무국 1841g CO _{2e}	 쇠고기무국 1841g CO _{2e}	 쇠고기무국 1841g CO _{2e}	 쇠고기무국 1841g CO _{2e}	 쇠고기무국 1841g CO _{2e}	 쇠고기무국 1841g CO _{2e}
 복어국 336g CO _{2e}	 복어국 336g CO _{2e}	 복어국 336g CO _{2e}	 복어국 336g CO _{2e}	 복어국 336g CO _{2e}	 복어국 336g CO _{2e}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워크숍



표준교안 예시(1)

로컬푸드학습지도안			
프로그램명	알고 먹으면 좋은 콩 이야기	대상학생	중, 고
지도교사	박영애	수업장소	실내
학습목표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의 의미에 대해 알고 가능하면 로컬푸드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게한다.	학습방법	모둠별 토의
단계 (시간)	학습내용	학습활동	지도상 유의점
도입 (10분)	- 콩으로 만든 먹거리 찾기 - 이 콩은 어디서 온 것인가? - 푸드 마일리지란 무엇일까?	강의	푸드 마일리지 지도 콩제품성분표
전개 (25분)	- 모둠 나누기 (모듬별 8인 내외) / 조장 뽑기 - 수입산 콩의 좋은 점과 나쁜점 찾기 / 국산콩의 좋은 점과 나쁜점 찾기 - 수입콩 대신 국산콩을 먹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모듬활동 브레인 스토밍 팀별 탐구 발표	포스트 잇 전지 싸인펜 매직
정리 (15분)	- 수입 콩 문제점 정리 - GMO, 농약, 수입시 약품처리, 종자 등 - 발표시 부족한 부분 보완설명 - 국산콩을 먹었을 때 생기는 효과 - 식량주권, 로컬푸드	강의	GMO수입량 기사 로컬푸드 매장 사진 등

표준교안 예시(2)

로컬푸드학습지도안			
프로그램명	글로벌푸드와 로컬푸드	대상학생	중, 고
지도교사	성기연	수업장소	실내
학습목표	왜 로컬푸드인가?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방법	모듬별 토의 조사탐구 수입농산물표, 푸드마일리지지도, 전지
단계 (시간)	학습내용	학습활동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식량 22% -> 5% •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 이대로 괜찮을까?	도표를 보고 질의와 응답	
전개 (35분)	- 나는 나의 먹거리에 대해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모듬별토의 • 낮은 식량자급률을 통해 알수 있는 '내가 먹을 먹거리 어디에서 올까?' 알아보기 (수입먹거리 실태, 푸드마일리지) • 우리의 식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메뉴의 식재료, 원산지 조사발표) (글로벌푸드, 로컬푸드란?) • 청양의 소동이 행복한 로컬푸드 이야기 (왜 로컬푸드인가?)	모듬별 토의 강의식 모듬별 조사탐구	수입농산물 푸드 마일리지 지도 조사탐구발표
정리 (5분)	우리의 먹거리는 글로벌 푸드에서 로컬 푸드로! (청양의 로컬푸드 조사하기 과제)	과제제시	

성과 및 과제

- 생산된 표준교안은 농민 소그룹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농민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소비자를 응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농민교사를 배출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교육 활동과 수정보완이 요구됨.
- 농민 스스로가 교사가 되어 소비자 모임 설명회, 학교 각종 체험과 도농교류 행사, 농민들의 자가 농장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
- 충남연구원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외국의 교육 사례, 푸드 마일리지와 탄소발자국, 수입농산물의 이동거리 등 로컬푸드 관련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함.

행복한 로컬푸드를 위하여!



2017. 03. 27(월)

-2016년 충남연구원 연구모임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미래 축산의 희망, 함께 꾸는 꿈



이돈영
(부여 하늘농원)



충남한우연구회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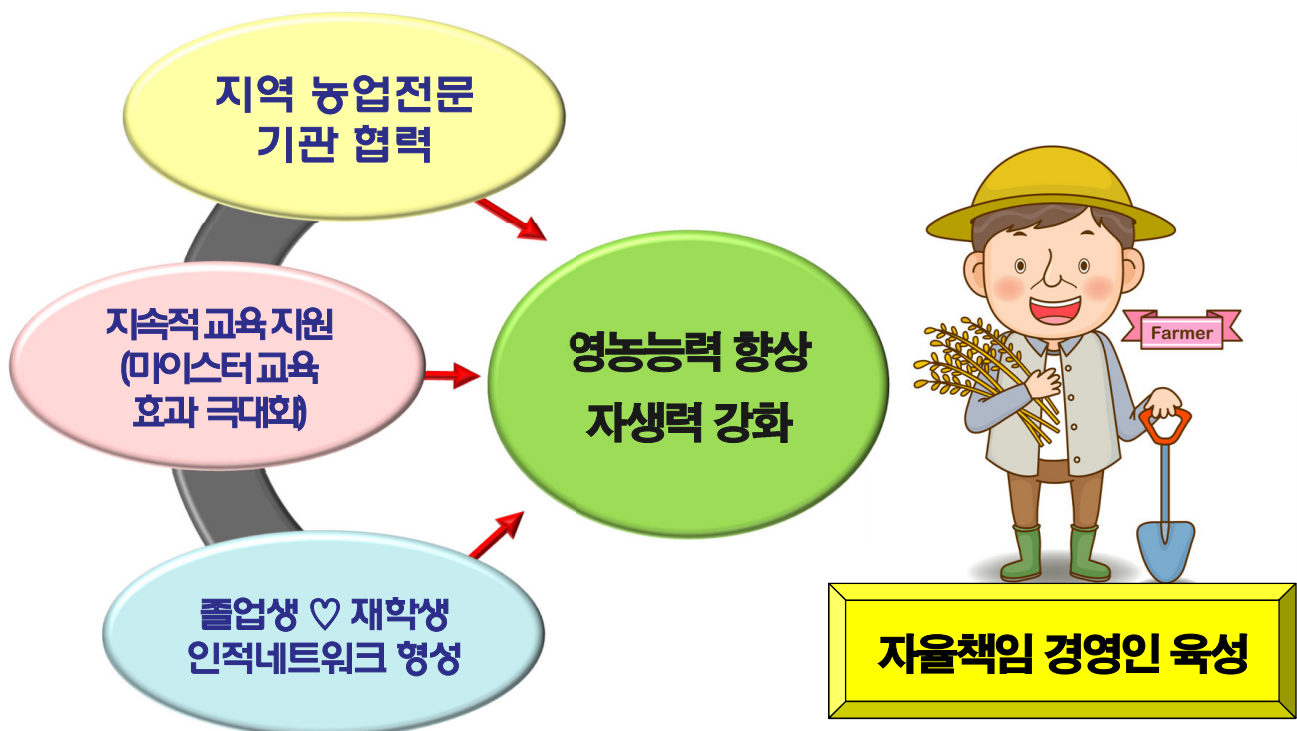
목 차

- 1 연구회 운영 동기 및 배경
- 2 연구회 운영 목적 및 기대효과
- 3 연구회 구성 현황
- 4 주요 전략 및 운영방법
- 5 운영 실적 및 성과
- 6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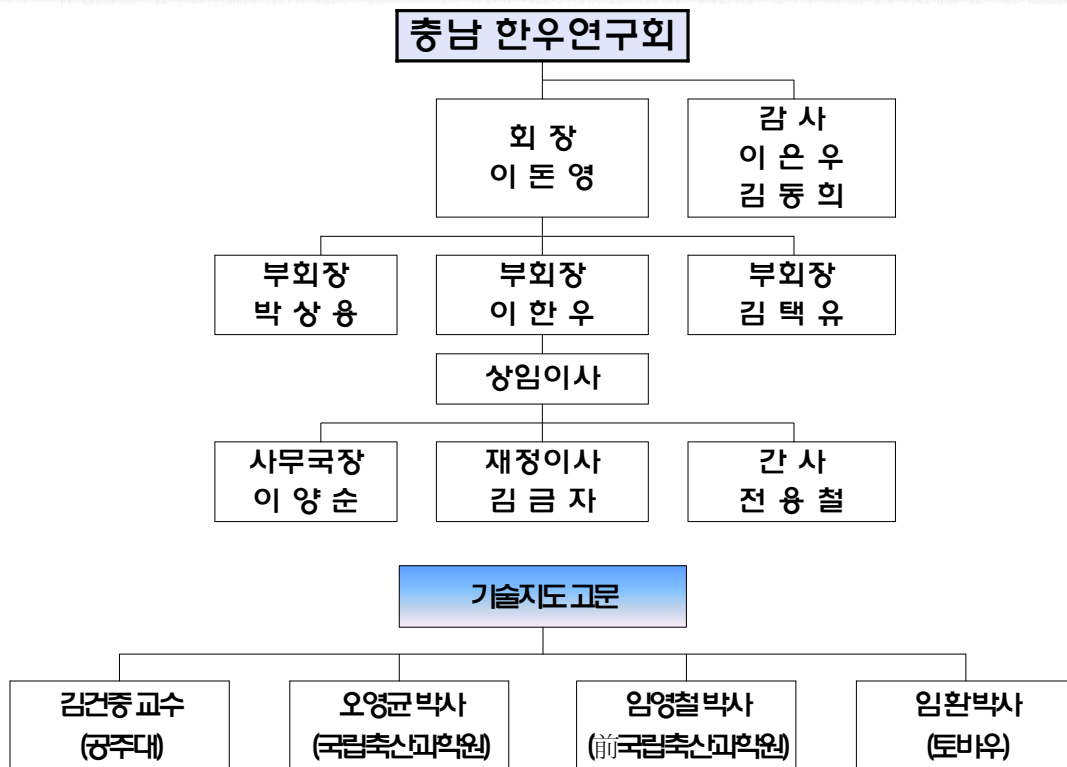
1. 연구회 운영 동기 및 배경

- 1 국외 FTA 체결에 따른 세계 무한경쟁 체제 도래
- 2 기업형 농장 등장에 따른 기존 농장의 경쟁력 향상 필요
- 3 충남지역 한우농가의 사양관리기술 향상 요구
- 4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효과 지속 및 극대화
- 5 한우산업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연구모임 필요

2. 연구회 운영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회 구성 현황 [연구회 기구표]



4. 주요 전략 및 운영방법



5. 운영 실적 및 성과

▷ 연구회 등록기관 : **충남농업기술원**(2016.06.07)

▷ 운영 실적 (특강 4회, 현장견학 2회)

- 2016.06.07(화) : 창립 총회
- 2016.08.29(월) : 특강 (조사료 이용 기술, 질병 관리)
- 2016.09.10(토) : 특강 (한우 TMR배합비 프로그램 운용 기술)
- 2016.11.01(화) : 현장견학 (비육우 사양관리 기술 벤치마킹)
- 2016.12.14(수) : 특강 (한우 사양관리 기술)
- 2017.01.03(화) : 현장견학 (질병 진단 및 치료 기술 벤치마킹)
- 2017.02.04(토) : 특강 (유행성 전염병 예방 기술)

연구회 운영실적 - 1

형식	회의	일시	2016.06.07(화)	장소	충남농업기술원 중강당
주제	충남한우연구회 창립 총회			지원	충남농업기술원
주요내용	■ 충남한우연구회 창립 총회 ○ 충남농업기술원 연구회 정식 등록 ○ 연구회 창립 취지 및 향후계획 협의 - 지역 한우산업 전문가 육성 -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축산분야 자율책임경영인 육성 ○ 연구회 구성 - 연구회 회원 : 이돈영 회장 외 44명 - 기술지도고문 : 4명 - 협조 기관 : 충남농업기술원,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연구회 운영실적 - 2

형 식	강사초청 특강	일 시	2016.08.29(월)	장 소	충남농업기술원 종강당
주 제	2016년 3/4분기 과제교육			지 원	충남농업기술원
주 요 내 용	○ 참가자 : 총 32명 ○ 좌장 : 김건중 교수 ○ 교육 주제 및 강사 - 양질 조사료의 중요성과 급여 기술 (임영철 박사_前국립축산과학원) - 환절기 한우 질병 진단 및 관리 기술 (임환 수의사_토바우) ○ 교육 성과 - 조사료 가격변동 및 이용효과 파악 - 2016년 하반기 조사료 파종 및 구입시기 결정 - 송아지 및 어미소 환절기 질병 파악 - 환절기 예방접종 시기 결정			 	

연구회 운영실적 - 3

형 식	강사초청 특강	일 시	2016.09.10(토)	장 소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충남 예산군)
주 제	한우 TMR배합비 프로그램 운용 기술			지 원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주 요 내 용	○ 참가자 : 총 32명 ○ 강사 : 오영균 박사(국립축산과학원) ○ 교육 내용 ▷ 한우 TMR 배합프로그램 ‘기초’ 교육 - 한우 거세비육 사양표준표 교육 - 한우 표준사료 성분표 교육 - 농산부산물정보 교육 ▷ 한우 TMR 배합프로그램 ‘고급판’ 교육 - 원료 등록(자가 TMR 원료 배합비 작성) - 배합비 계산 ▷ 한우 TMR 배합프로그램 입력값 진단테스트 - 입력 원료 및 배합비 진단 테스트 실시 - 진단 테스트 결과 분석 - 성분 및 비율 조정 및 수정입력 - 자가농가 저비용 고효율 배합표 완성			 	

연구회 운영실적 - 4

형 식	현장 견학	일 시	2016.11.01(화)	장 소	한아름농장 (충남 홍성군)
주 제	비육우 사양관리 기술 벤치마킹			지 원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주 요 내 용	○ 참가자 : 총 35명 ○ 강사 : 김건중 명예교수(공주대학교) ○ 교육 내용 ▷ 농장 출하성적표 분석 - 출하등급, 등지방두께, 도체중, 수입 등 분석 ▷ 자가 TMR사료 제조 및 급여 기술 - 자가 TMR 원료 관찰 - 자가 TMR 배합기 및 급여기 운용법 교육 ▷ 미생물 배양 제조법 - 원료 혼합 (당밀 20L, 흑설탕 8kg, 소금 3kg, 황토 1kg, 미생물원균 10L, 쌀겨 100g, 물 1,000L) - 배양온도 : 35℃ - 배양기간 : 10일~12일 - TMR 제조 시 사료 1톤 당 5L 첨가 사용 - 우사소독 시 물 200L + 미생물 20L 살포			 	

연구회 운영실적 - 5

형 식	강사초청 특강	일 시	2016.12.14(수)	장 소	더스타 웨딩홀 (충남 예산군)
주 제	한우 사양관리 기술			지 원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주 요 내 용	○ 참가자 : 총 30명 ○ 강사 : 김건중 명예교수(공주대학교) ○ 교육 내용 ▷ 한우 사양관리 기술 - 송아지 사양관리 기술 (신생송아지, 어린송아지, 육성송아지) - 비육우 사양관리 기술 (조사료급여, 영양사료 및 보조사료) - 출하기 사양관리 및 육질진단 ▷ 사양관리 기술 신간 소개 및 브리핑 (한우야 놀자_축산신문) - 영역별 주제 및 내용 설명 - 필독 사항 점검 - 농가 현장 적용기술 설명			 	

연구회 운영실적 - 6

형 식	현장 실습	일 시	2017.01.03(화)	장 소	맹호농장 (충남 홍성군)
주 제	질병 진단 및 치료기술 벤치마킹			지 원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주 요 내 용	○ 참가자 : 총 36명 ○ 강사 : 임환 의사(토바우) ○ 교육 내용 ▷ 환축 질병진단 기술 - 외형상 상태관찰을 통한 질병 진단 (피모, 두부, 배변상태 관찰) - 체온측정을 통한 질병 진단 (항문 체온 측정 : 38℃~39℃) - 1위 내용물 측정을 통한 소화기 질병 진단 (약알칼리성 상태가 정상) ▷ 환축 주사 기술 - 근육주사 : 엉덩이 윗 부분에 주사 - 피하주사 : 앞다리 어깨 부위에 주사 - 정맥주사 : 좌우측 목부위 정맥혈에 실시				
					

연구회 운영실적 - 7

형 식	강사초청 특강	일 시	2017.02.04(토)	장 소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충남 예산군)
주 제	유행성 전염병(구제역 등) 예방 기술			지 원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주 요 내 용	○ 참가자 : 총 29명 ○ 강사 : 임환 수의사(토바우) ○ 교육 내용 ▷ 구제역 증상 및 진단 기술 - 체온 상승, 식욕부진, 활동성 저하 - 타액이 심하게 분비 - 발굽사이, 제관부, 두부에 수포 발생 - 키트진단 실시(항원진단법, 항체진단법) ▷ 구제역 확산방지 행동강령 교육 ▷ 백신접종 주의사항 - 보관 : 백신이 얼지 않도록 2~8℃ 냉장보관 - 접종 : 접종 전 15℃~25℃ 가온 후 접종 ○ 교육 성과 ▷ 회원농가 중 구제역 발생 無				

형식	네이버 밴드 (SNS 컨설팅)	밴드명	충남한우연구회	주소	http://band.us/#!/band/61732083
----	------------------	-----	---------	----	---------------------------------

- 주제
1. 자문위원 및 현장전문가 실시간 컨설팅
 2. 선도농가 영농노하우 및 농장 현황 정보 교류

충남한우연구회

이돈영(충남한우연구회장) 2016년 9월 20일 오후 3:51 · 24 읽음

미숙아 조기출산 10kg 어떻게 살려야 하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내기

9월 20일 오후 3:53

인공유리로 살려야죠. 온도를 맞춰주고요

좋아요

이돈영(충남한우연구회장) 9월 20일 오후 4:12

네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내기

충남한우연구회

정인하 2016년 8월 10일 오후 3:55 · 18 읽음

홍성 송아지 길에 최고가 받들



충남한우연구회

정진영 2016년 8월 25일 오후 4:57 · 17 읽음

이(하)정맥 주사 임상입니다^^

참고하시고~ 농장에서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좋겠네요~



댓글 1

가장 먼저 표정을 남겨주세요.

정진영 2016년 8월 25일 오후 4:59

다른파일은 밴드에서 인식이 안되는 파일이네요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메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내기

[보도자료 1 - 창립총회(월간축산, 2016년 7월호)]

충남한우연구회 창립...
'한우산업연구 활성화' 힘 모은다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공주대캠퍼스 출신 45명 주축



충남한우연구회(회장 이돈영)는 지난달 7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소재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공주대캠퍼스에서 도내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남한우연구회 창립총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충남농업기술연구원 김영수 원장, 윤영환 기술개발과장, 김길하 기술보급과장을 비롯해 김건중 교수(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공주대캠퍼스), 임영철 박사(충남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관), 오영균 박사(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관), 임환 박사(토마우 수의사)와 한우농가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한우연구회는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공주대캠퍼스 제3기 한우산업 24명 등 총 45명을 주축으로 이날 창립했다.

충남한우연구회의 수석기술지도교문으로는 김건중 교수가 기술지도교문으로는 임영철 박사와 오영균 박사, 임환 박사가 주재했으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정보교류 및 회원 간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결원을 승인받았다.

김영수 원장은 축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탄생한 연구회 창립을 축하하며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었지만 연구회가 충남 한우산업 발전을 선두에 서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충남한우연구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이돈영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경험과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충남농업기술원과 함께 도내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한우연구회 창립...한우산업연구 활성화 힘 모은다



한편, 충남한우연구회는 올해 한우 선진지 견학, 전문 지식 교육, 한우정책 및 정보 공유, 현장으로 문제해결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고급 육질생산 및 육량 증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번식농장 육성 및 양성 ▲송아지 폐사를 0% 달성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활성화 등을 목표로 회원 간 상호 기술협력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터뷰
이돈영
초대회장

"충남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한우산업은 FTA와 김영삼법, 등급제 개선 논란 등으로 한우농가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때일수록 농가 모두 뜻을 모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돈영 충남한우연구회장은 "충남농업마이스터 대학에서 한우산업에 대한 정보와 선진기술을 습득한 농가가 모여 한우산업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남한우연구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초창기 충남농업마이스터 대학에는 한우분야가 없었다. 하지만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선 선진농가의 기술 습득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주대학교 김건중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한우대학을 설립하게 됐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체계적으로 한우를 사육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연구회까지 창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의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이 회장은 "현재 충남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에서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첨단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우산업의 발전과 견장, 육종과 번식, 송아지 질병관리 등에 대한 주제로 연 3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 회원농가 모두 충남 한우산업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협력·상생할 것이며, 나아가 불우이웃들기 등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와 소통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한우농가는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한다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우산업 발전에 열정이 있는 어떤 농가라도 충남한우연구회의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영숙】

[보도자료 2 - 2016년 하계특강(월간축산, 2016년 10월호)]



16

[보도자료 3_ 제4회 한우사랑 품평회 대상입상(퓨리나, 2016.10.20(목))

③ '제4회 푸리나 한우사랑 품명회' 대상입상 _ 박상용 회원(푸리나사료, 2016.10.20(목))

“제4회 퓨리나 한우사랑 품평회” 영예의 주인공

2016년 10월 19일(주)카길에그리파나(대표이사 이보균)의 푸리나사료가 주
최의주 협신식품(대표: 김익환)이 후원한 “제1회 푸리나 한·사단장 평의회”가
안양시, 협신식품에서 열렸다. 이 평의회는 전문가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차라지, 1차 고적인 생산농가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한우를 소비하
고자, 2차 고적인 유통업체에서는 차별화된 품질의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장으로 마련되었다. 2013년 협신식품과 사업제휴 이후 올해로 4번째
로 대표적 한우품질대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심사를 맡은 측산돌풍절경가원 유무상 경기지지원장은 심사 발표에서 "총 45 농경지에 45두의 한우 기세루를 출하하여 1+1등급 13% 2등급 1%, 1등급 28% 36%, 고급육인 1+1우 92%로 16년 상반기 전국 개량사육 출현율 5% 대비 66%의 높은 고급육이 출현하여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등지방 두께가 평균 13.8mm로 전국평균 (13.7mm)보다 0.1mm(101%)+ 두꺼웠으며, 등심단면적은 101.96cm²로 전국 한우 개량평균 (91.8cm²)보다 매우 우수(111%, 10.16 cm²)하였다. 지육속도가 좋은 품종개량에 되도록 노력할다"라 하였다.

대상 수상은 홍성현우 박상용 사장님으로 1++A, 도제축 455kg, 경락단가 41,500원으로 총 지육대금 18,882,500원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금상은 경기포천 장영귀 사장님, 은상은 경북 김천 백효기 사장님, 동상은 경북 김천 이수형 사장님, 최고 동상상은 홍성현우 김성복 사장님, 최다 육량상에는 양평축협 황승조 사장님이 수상하였다.

대상 수상한 홍성현우 박상용 사장은 “한우를 사육한지 10년이 되었는데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을 바탕으로 프리니티와 함께 묵묵히 고급육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오늘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한우 고급육 생산 농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용순 전라카페팅 전무는 "이러한 한우 사업 환경이지만 한우 고급육이 한우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이 있다. 출몰해주신 농가 여러분들과 품계회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내년에 더 모습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푸리아 사료는 앞으로도 국내외 선진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평정 기술연구소를 통한 자체 연구 개발을 주도하여 한우산업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푸리아 한우사랑 맥스 프로그램은 축적된 거세 우 연구 결과와 선진 영양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우연구용 동종 모델을 접목하여 기존 한우 기술서의 도제학과 육질정보를 더욱 높이고서도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기술을 통해 경제성상량을 증가시켜 농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6.10.20 퓨리나뉴스-183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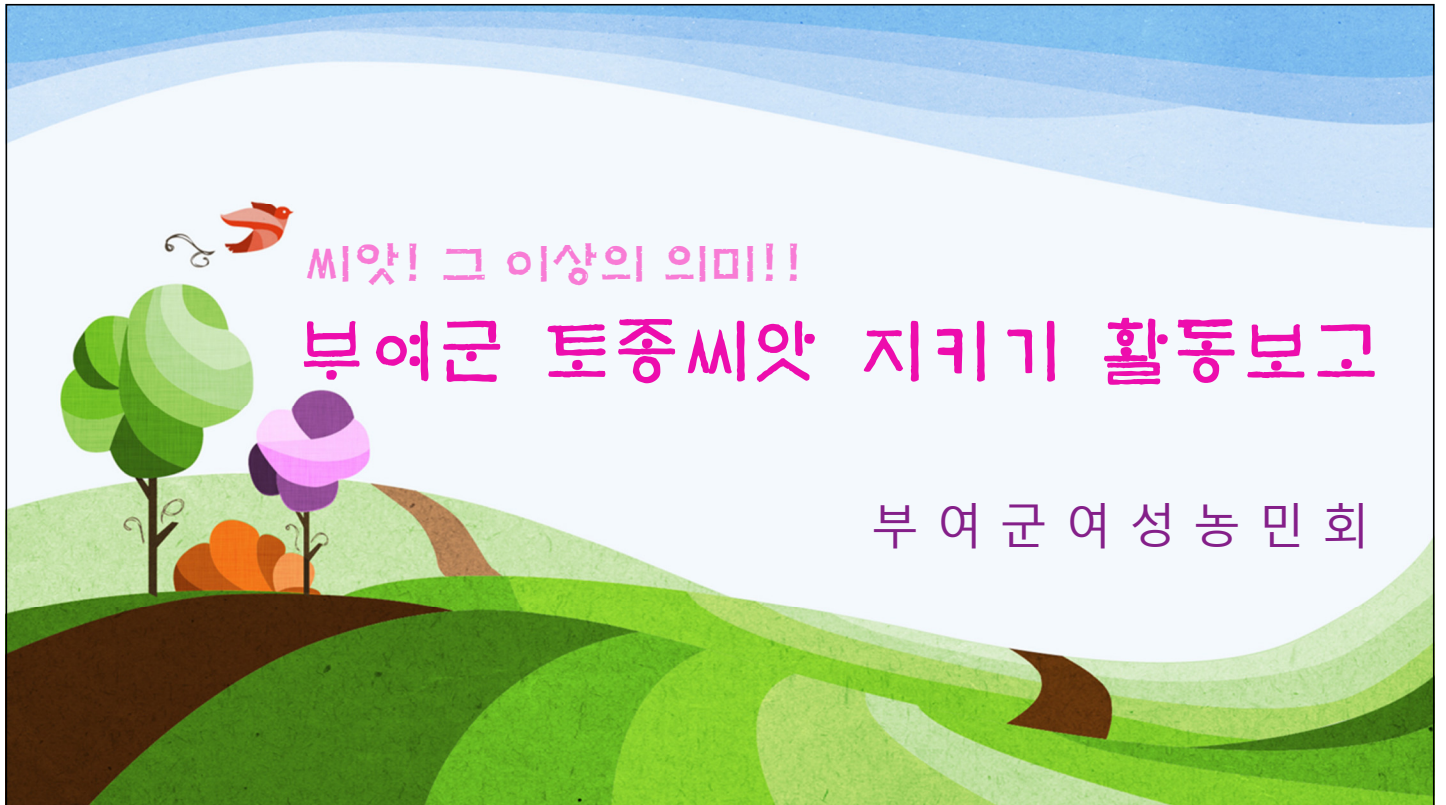
6. 향후 계획

- ▷ 한우농가의 영농능력 제고 및 자생력 향상
 - 송아지 폐사율 0% 달성
 - 육량 : 평균 도체중 500kg 달성
 - 육질 : 1+ 이상 등급 출현률 90% 달성
- ▷ 기술지도자 양성 및 지역 주변농가 기술제공
- ▷ KPN 우수품종을 이용한 한우암소개량 극대화
- ▷ 우수농가 선정을 통한 선진 기술 공유(간행물 발행)



충남 한우산업의 발전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1. 토종씨앗이란?

- 현장인 농가에서 농민들의 손을 통해 대대로 보존되고, 기후와 토양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자라고, 수확하여 채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 토종씨앗의 권리는 심는 농민에게 있고, 토종씨앗은 농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2. 토종씨앗의 중요성

(1) 씨앗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둬들여야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속
시키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2. 토종씨앗의 중요성

(2) 씨앗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식량위기다!, 식량전쟁이다! 라는 말로 떠들썩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씨앗과 땅이 있다면 식량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2. 토종씨앗의 중요성

(3)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를 살립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위험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을 보전할 수 있는 중심에 바로 씨앗이 있습니다.

2. 토종씨앗의 중요성

(4)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거나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해도 해마다 500여종씩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토종씨앗도 그 자취를 잃어 가고 있습니
다. 잃어버리기 전에 보존해야 합니다.

2. 토종씨앗의 중요성

(5) 토종씨앗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몸에 맞도록 변화되어 왔습니다.

수만 수천여 가지의 씨앗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몸에 좋은 것들이 걸러지고 선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토종씨앗이 바로 우리의 몸에 맞는 먹을거리입니다.

2. 토종씨앗의 중요성

(6) 외국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약 30조원에 달하는 씨앗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한 해 200억 원의 로열티를 주고 씨앗을 사고 있습니다.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1) 1명의 여성농민이 1품종의 토종씨앗 지키기



전국 각 지역의 마을마다 토종씨앗을 널리 확대합니다.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2) 토종씨앗 실태조사



->부여군 내산면 천보리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씨앗을 보존하고 선별하고 심는
것은 여성농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2011년, 2016년 부여군 곳곳을
다니며 우리 부여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어머니들의 씨앗과 씨앗의
역사를 모았습니다.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2) 토종씨앗 실태조사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2011년에도..

2016년 지금도.. 토종씨앗을
지키고 계시는 어머니들~

스팸 통, 사탕 통이..

보물창고로 변신!!!

어머니들의 역사와 함께 하는

토종씨앗들~

어머니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2) 토종씨앗 실태조사

2016년 11월부터 부여군 토종씨앗 실태조사 진행중

내산면, 초촌면, 홍산면 진행중

상추, 아욱, 시금치, 조선오이, 배추, 청각, 취나물, 파리, 결명자,
목화, 강낭콩, 들깨, 완두콩, 녹두, 대파, 제비강낭콩, 찰옥수수,
서리태, 배추, 팥, 이팥, 동부, 흑임자, 호랑이강낭콩, 단수수,
메밀, 단호박, 흰팥, 달래, 서리밤콩, 40일깨, 어금니동부, 호박
씨앗 획득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3) 토종씨앗 채종포

- 2008년부터 10년동안 토종씨앗 채종포 운영
- 초촌면 토종씨앗 채종포 200여평, 홍산면 생태농장 300여평
- 2014년부터 한살림 충남남부 소비자,
한살림 부여군여성생산자들과 함께 채종포 운영
- 2016년 72가지 토종씨앗 채종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3) 토종씨앗 채종포 - 토종씨앗 보유목록

의성배추, 뽕시금치, 빨간갓, 근대, 들깨, 아욱, 가지, 울무, 수비초, 봉어초, 오이, 기장, 긴호박, 맷돌호박, 둥근호박, 쥐이빨옥수수, 찰옥수수, 흰당근, 물고구마, 대파, 돼지파, 삼층거리파, 마늘, 생강, 여주, 수세미, 메주콩, 쥐눈이콩, 오리알태, 선비콩, 아주까리밤콩, 퍼렁콩, 서리태, 앞은뱅이 강낭콩, 호랑이 강낭콩, 제비 강낭콩, 팥, 쇠이빨넝쿨강낭콩, 거창나물콩, 부여재래종콩, 강낭콩(보라),작두콩, 땅콩, 녹두, 차조, 이팔, 검정팥, 어금니동부, 흰동부, 갓끈동부, 검정동부, 각시동부, 완두, 흰메수수, 묵화, 찰수수, 까만찰수수, 몽탁수수, 단수수, 해바라기, 다면, 자주감자, 결명자, 사과참외, 개구리참외, 붉은밤콩, 아주까리, 반달콩, 황성메조, 차조, 검정땅콩, 논두렁콩, 참깨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3) 토종씨앗 채종포



소상공동체 남성생산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작되는
채종포 활동



씨앗 파종



모종 정식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3) 토종씨앗 채종포



웬수같은 풀들~
풀도 매고,, 숙기도 하고,,



수확의 기쁨!



씨앗 갈무리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3) 토종씨앗 채종포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4) 토종씨앗 홍보, 나눔

- 우드락, 리플렛 등으로 토종씨앗과 GMO에 대해 홍보.
- 부여군 어린이날 토종모종 나눔 (쥐이빨옥수수, 찰옥수수, 상추)
- 부여군 착한장터, 충남농민전진대회, 한살림 가을걷이, 전여농씨앗 축제 등에서 매년 4~5회 나눔진행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4) 토종씨앗 홍보, 나눔 - 어린이날 모종 나눔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4) 토종씨앗 홍보, 나눔 - 장터에서 씨앗 전시 및 나눔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5) 토종씨앗 축제



한 해 동안 진행한 토종씨앗 지키기 사업을 마무리 하며, 토종씨앗 전시, 나눔, 채종포에서 수확한 작물들로 토종 한끼 식사를 진행하여..

주변 사람들과 토종씨앗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

3.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6) 토종종자 보존 지원 조례 활동

토종농사를 짓는 것은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고, 우리의 농업을 지속 시켜나가는 다원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활동입니다.

이런 농사를 짓는 여성농민에게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직불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해야 합니다.

2016년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발의로 충청남도 토종종자 보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직불금 지급 형식은 아니지만 토종씨앗 지키는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가 토종씨앗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